

베트남공연단이 고국 전통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머리에 쓴 장식과 의상이 신비감을 자아내며 이채롭다.



찬불가요를 부르는 베트남가수들과 스크린 뒤의 관세음보살 배경 사진이 인상적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번 음악회에는 베트남 불자 등 600여명이 모였다.

‘아오자이’ 실려온 佛音… 고향생각 ‘흠뻑’

원오도량, 베트남사찰 건립기금 모연음악회
고국 가수들 무료 공연, 600여 관객 기립박수

“학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분들에 비하면 별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요. 그리고 고향의 음악을 손수 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서 한국으로 유학 온 레짱 씨는 울먹였다. 머나먼 이국땅서 느끼는 향수(鄕愁)와 온갖 어려움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었다. 눈물 흘리진 않았다. 끝내 미소를 띠었다. 고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주한 베트남사찰 원오도량(지도법사 팃 드엉 탄)이 10월 2일 서울 용산아트홀서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고국음악회를 열었다. 아울러 종교인 중 대다수가 불자인 베트남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한국도량 건립 모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베트남사찰은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서양에는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한 곳도 없다.

이날 원오도량은 ‘사찰 지붕, 그리고 민족’이라는 주제 아래 베트남가수들을 초청,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을 마련했다. 초청가수들 역시 행사 취지에 공감해 공연비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

공연에 앞서 객석을 가득 메운 600여 명의 베트남인들은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베트남식으로 봉행했다. 함께 자리한 한국스님과 불자들도 예를 갖췄다. 이후 베트남 남녀로 구성된 공연단이 베트남 전통예술공연을 펼쳤다. 단원들은 전통춤과 전통무술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돋우고,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관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가수들이 출연하자 엄숙했던 공연장은 곧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베트남어인 노랫말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옴마니반메훔’ 등의 가사는 명확히 전달됐다.

여타 국내 음악회와 다른 점은 하나의 무대가 끝나갈 때마다 주최 측이 공연자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베트남문화가 돋보였다.

유일한 한국인 공연자 허철영 테너는 ‘넬슨 도르마’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성악곡을 선보였다. 풍부한 성량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고음에 관객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허철영 테너는 “마치 고향분들과 함께인 듯 공연이 편안했다”며 “원오도량의 베트남사찰 건립이 많이 알려져 국내에 멋진 도량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 중간에는 현재 원오도량이 국내서 펼치고 있는 활동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불교계와 교류하는 모습부터 연등회 참가, 효도법회,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모습이 소개됐다. 결혼이주여성인 응옥여임 씨는 영상인터뷰서 “한국에 베트남인들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들만의 사찰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며 “베트남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찰 건립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한국도량 건립 발원
원오도량 7개 지부
십시일반 성금 모아
부지확보 고군분투
한국불교 도움 절실

스트레스 날린 자리
주한 베트남인 鄕愁
고국 음악으로 달래
전통공연 · 찬불가요
어릴 적 추억 ‘물씬’

이어 사찰건립기금 모연을 위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에는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50가지 마음씨앗이 그려진 그림 ‘마음의 정원’과 베트남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가 나왔다. 마음의 정원은 한 베트남 여성불자가 250만원에, 달마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음악회의 대미는 베트남 유명 여가수인 피눙이 장식했다. 피눙은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곡 위에 감미롭고 애절한 목소리를 얹어 감동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피눙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향수에 젖어들었다.

베트남에 가족을 두고 온 근로자 응우옌 풍 씨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 지낸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베트남사찰 건립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베트남인의 초대를 받아 온 창원 금강 정토사 수미향(51) 불자는 “평소 주지스님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인연으로 오게 됐다”면서 “베트남과 한국이 불교로 하나 되는 자리로 느껴져 가슴 벅찼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와 조화이룬 도량 건립 발원”
원오도량 지도법사 팃 드엉 탄 스님



“그동안 주한 베트남불자들은 한국불교와 종파를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여러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한국불교와 조화로울 수 있는 도량을 세우고자 베트남불자들이 마음 모았습니다.”

베트남사찰 건립기금 모금음악회를 주최한 원오도량 지도법사 팃 드엉 탄 스님〈사진〉은 구상 중인 도량의 지향점을 ‘한국불교와의 조화’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원오도량은 1차 목표였던 사무실을 인천 남동구에 마련한 이후 현재 사찰부지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베트남불자들이 작은 모임을 통해 국내 사찰을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원오도량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현재 서울 · 충북 · 대전 · 전주 · 울산 · 마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부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 종교인의 절반가량은 불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결혼 하든 늘 절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베트남사찰이 없어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베트남불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팃 드엉 탄 스님이 주한 베트남인들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 스님은 우선적으로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전국 사찰을 돌며 교류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가 다문화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베트남사찰을 마련해 베트남인들을 돌보는 한편, 한국불교와 더욱 여법한 교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확보와 행정처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에 사무실을 임대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지를 확보하고, 사찰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담당하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불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호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무 : 도은, 정해
교무 : 본각,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진화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각원, 현타
복지 : 화광
감찰 : 서호,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의식 : 련성, 지해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권소라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사업부
총괄원장 : 이창훈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 설주성
여신도회장 : 김춘자
수석부회장 : 윤근
신도회장단 :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